

LA시의원 선거에 출사표 던진 두 한인 여성

LA시의원 선거에 두 한인 여성이 출사표를 던졌다.



먼저 그레이스 유 후보(48·사진)는 10지구에서 시의원에 도전한다. 이 지역의 인종별 유권자 비율은 흑인이 39%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아시안이 12%, 기타인

종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후보는 흑인 유권자 공략에 나서 지난 10일 아가페 LA 교회의 크레이그 워삼 목사, 워드 인커리지먼트 커뮤니티 교회의 나주마 스미스-플라드 목사, 월드 임팩트 서부지역 부회장인 피트 와츠 목사, 전 침례교 컨퍼런스 회장인 마비스 데이비스 목사 등 흑인 개신교 리더들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의원에 도전하는 유 후보는 우선 내년 3월에 열리는 예비선거를 통과한 후 결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지구에서는 신디 조 오스틴(40)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 후보는 직접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 조 후보는 이 지구 현역의원인 호세 후이자 시의원이 개발업자들로부터 대가성 자금을 받은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은 것을 의식한 듯 “개발업자는 물론 기업으로부터도 후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다.

조 후보는 중동계 난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미리스리스트(Miry’s list)’ 이사장으로도 활동했으며 이글락 주민의회에서 부의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인지도를 높였으나 이 지구에서 출사표를 던진 케빈 드레온 전 거주 상원의장, 모니카 가르시아 LA통합교육구 교육위원 등과 어려운 싸움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 김 전 거주하원의원, 폴리τικο 선정 ‘영향력 있는 여성’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했다가 영 김(57·공화·한국명 김영옥·사진) 전 거주하원의원이 정치전문매체 폴리τικο가 선정한 ‘2019 영향력 있는 여성’ (Women of Impact)으로 선정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폴리τικο는 전날 “올해 선정한 영향력 있는 여성들은 행동하는 여성, 신념 있는 여성의 본보기” 라면서 “선거(Running), 정치활동(Leading), 기업활동(Earning), 사회봉사(Building)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4명을 정했다.” 라고 밝혔다. 영 김 전 의원은 네 부문 중 ‘선거’ 분야에서 선정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원 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 출마해 개표 초반 우세를 유지하며 당선이 유력했으나 막판 길 시스네로스(민주)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해 불과 1.6%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5월 내년 말 치러지는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재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김 전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전국의 여성들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또 일하고 있다. 이런 여성들이 많을수록 공화당은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난 영 김 전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이주해 중고교를 다닌 뒤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에 입학하면서 캘리포니아로 건너왔다. 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서 13선을 한 에드 로이스(공화) 의원의 보좌관으로 20여 년간 일했으며 은퇴를 선언한 로이스 의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난해 6월 예비선거인 정글 프라이머리에서 1위로 본선에 오르며 사상 첫 한인 여성 연방하원의원의 탄생을 기대했으나 최종 고비를 넘지 못했다.

폴리τικο는 “영 김이 곧바로 일어서서 리매치(재대결)에 도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고 밝혔다.

폴리τικο는 김 전 의원 외에 TV쇼 제작자 데브라 마틴 체이스,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 지도자 알란 해밀턴, 실내장식 제조업체 CEO 메이주 등도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했다.

LA한인타운, 노숙자 밀집도 높다

LA카운티정부가 11일 LA카운티 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이 조사한 2019년 노숙자 통계를 바탕으로 만든 지역별 노숙자 현황 지도(Los Angeles County Homelessness & Housing Map)를 공개했다. 이 지도는 노숙자 문제에 효율적을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지도에 따르면 LA한인타운과 그 인근의 노숙자는 837명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한인타운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는 198명, 외곽 지역인 월셔센터 구역에 521명, 리틀 방글라데시 구역에는 140명 등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에 따르면 노숙자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LA

다운타운이다. LA한인타운, 할리우드, 사우스LA, 샌타모니카, 밸리 지역 등도 노숙자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정부에 따르면 카운티 전체 노숙자 5만 9,000명 중 4만4,000명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LA카운티 전역에 있는 노숙자 임시 쉼터 지원시설은 326곳으로 총 1만3,461개의 침상을 갖추고 있다. LA카운티 정부는 1년 안에 58개의 지원 시설 공사를 통해 4,506개 침상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노숙자 현황과 쉼터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는 웹사이트(storymaps.arcgis.com/stories/400d7b75f18747c4ae1ad22d662781a3)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 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 1pm~5pm 토 9am~2pm

LA 213)352-1090

520 S. Virgil Ave Suit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714)735-8588

5451 La Palma Ave. Suite 26
La Palma, CA 90623

FAX 562)249-8443

TALK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